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화 시대 발맞춰 하나님의 일꾼 양성”

제40회, 41회
합동 학위수여식 거행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는 지난 5일, 남가주 산타페스프링스에 소재한 본교 채플에서 제40회 및 제41회 합동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5명, 교역학 석사 33명, 크리스천상담심리학 석사 3명 등 총 5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학위수여식은 지난해 코비드 팬데믹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40회 졸업식과 함께 거행됐으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학위수여식은 졸업생의 33%인 17명이 남가주 본교가 아닌 미국 타주를 비롯해 한국, 키르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프랑스, 뉴질랜드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한 학생들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미주 장신대의 원격 교육이 돋보였다.

1부 감사예배는 이명철 목사의 인도로 정용갑 목사의 기도 후 유영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40회, 41회 졸업감사예배 및 합동 학위수여식

기 목사(미주장신대 이사장)가 “조심을 끝까지”(요 15:12-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 목사는 “조심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 되자”며 “눈에 보이는 성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미

주장신대는 작게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산실이고, 크게는 미주 지역의 교회와, 또 세계라는 무대에서 사역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영성과 지성의 전당”이라며 “본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빛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 총회장은 정

귀정씨(40회), 강혜승씨(41회)가 수상했고, 이사장상은 김은주씨(40회), 김기운씨(41회)가 받았다. 또 총장상은 이준호씨(40회), 장유진씨(41회)가, 동문회장상 공로상은 박동진씨(40회), 이견민씨(40회), 봉사상은 김한영씨(41회), 노용진씨(41회)가 수상했다.

한편 1977년 9월 개교한 미주장신대는 KPCA(해외한인장로교) 인

준신학교로 BPP(가주교육국)의 인준을 받았으며 ABHE(성서고등교육협회), ATS(북미신학대학협회) 정회원 신학교다.

학제는 ESL 과정과 대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학부에는 신학 학사(B.Th.), 사회복지 학사(B.A. in Social Work), 글로벌경영학 학사(B.A. in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세 학위 과정이 있다. 대학원에는 교역학 석사(M.Div.), 크리스천상담심리학 석사(M.A.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선교학 석사(M.A. in Intercultural Studies) 세 학위 과정이 있으며, 강의는 오프라인, 온라인 및 블렌디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2017년 11월 미국 내 한인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ABHE로부터 선교학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과정을 승인 받아 선교지향적 신학교로서의 토대를 다졌다. 현재 3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졸업생은 총 777명이다.

김동욱 기자

미 남침례교 “선교 목표 1순위, 500명 선교사 파견”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위원회(IMB)가 향후 5년 안에 교단 선교에 미전도 종족과 장소를 참여시키기 위한 '2025 목표(2025 targets)'를 발표했다.

미국 뱀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폴 치트우드 IMB 회장은 이를 위해 500명 선교사를 추가 파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은퇴하는 선교사들의 수를 감안할 때, 교단은 매년 400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필요하다.

스콧 레이 국제선교위원회 평가 및 배치 책임자는 500명의 추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 각 선교사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침례 교인들이 현재의 삶의 계절이 어떠한지, 이 숫자를 달성하는 것을 도울 기회가 있다. 대학을 막 졸업했든, 신학교 학위를 받았든, 현재 비즈니스 전문가든, 의료 분야에서 일하든, 여러분을 위한 길이 있다”며 “열망을 제자로 삼는 대서명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곳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교사에 지원한 성인 또는 가족을 위해 봉사 기간, 자금 지원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교사는 크게 3가지 - 팀 구성원(team member), 팀 동료(team associate) 및 현장 지원(field support) 인력으로 분류된다.

팀 구성원은 IMB로부터 전액을 지원받는 전임 선교사를 뜻한다. 이들은 IMB 직원으로서 완전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선교사로 복무하는 최소 기간은 2년에서 4년이다.

팀 동료란 IMB를 제외한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이며, 최소 활동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주로 다른 단체나 교회의 후원을 받게 되며, 전임 또는 시간제로 선교 활동



이 가능하다.

현장 지원 인력은 IMB가 해외 전문 봉사활동을 위해 파송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이들은 IMB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으며, 주로 선교사 팀

에 전문적인 봉사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역은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단기 선교 여행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1주에서 3주 또는 여름 및 학기 동안이나, 2년간의 봉사 기간 중에 선택하여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

IMB는 이 밖에도, 전 세계 75개의 도시를 선교지에 추가하고, 남침례회 산하 교회의 75%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에 참여케 하며, 매년 IMB에 대한 기부율 6%씩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2021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가져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총장 엘리야 김 박사)는 지난 12일,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2021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2명(임정열, 안정희), 목회학 석사 4명(채수전, 이로완, 김나오미, 백선경), 신학석사 1명(손사라)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또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명예 박사 학위를 진건호 목사, 이학진 장로에게 수여했다.

엘리야 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1부 졸업예배는 송인 박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장)의 인도로 강성수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증경총회장)가 기도했다. 주재임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LA 노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강순영 목사가 설교했다. 헌금 기도는 박정희 목사(개혁장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2021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기독일보

로회한미연합총회 총회장)가 했으며, 안선신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증경회장)의 봉헌 찬양 후 송인 목사가 축도했다.

강순영 목사는 “성령님을 만나세

요”(눅24:49, 행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훌륭한 신학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 잡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 가라”며 “영혼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학위수여식은 민준기 박사(미

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사회로 이호우 목사(OC기독교협 이사장)의 기도 후, 전영훈 박사의 학사 보고에 이어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위수여식 축가는 김숙영 교수(우리복음방송 아나운서)가 불렀고, 민승기 목사(미기총 회장), 박상목 목사(OC 기독교협회장),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 양학봉 회장(LA 평통 수석부회장), 임덕순 장로(국제 하나사랑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또 김인철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증경총회장), 고영준 박사(분교 박사원장)가 졸업생들을 권면했으며, 채수전 장로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했다.

한편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인준 신학교로 2015년 9월 주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현재 TRACS 가입을 신청 중에 있다.

김동욱 기자

“한국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덕주 교수가 7월 2021 KMP 웨비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영상 캡처

이었고, 여기에 좋은 씨앗인 복음이 들어와서 좋은 농부인 선교사와 한국인 목회자와 신학인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천 년의 한국 민족의 역사를 소개할 때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며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 최근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주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한민족은 어딜 가든지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 이것이 고난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족 번성을 위한, 가족과 자녀, 남을 위한 희생이 굉장히 강하다.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고난, 생존, 번성 등 이 세 가지의 역사 체험과 문화 체험, DNA가 한민족에게 있는 것”이라며 “고난 ‘고’자에 이미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육도인 위 세 가지(고난, 생존, 번성)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전부터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온 그 시점이 곧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하던 시기”라며 “그래서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개신교 선교 역사와 똑같이 진행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랑의 사명(Mission by love)으로 자신을 희생한 좋은 농부들이 있었다”며 “또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통해 한국은 부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한민족에게

준 선물 세 가지는 복음과 나라사랑(기독교 민족주의) 그리고 개방과 근대화”라며 “일제시대와 맞물려 한국 기독교는 나라사랑 즉, 민족 문제에 민감하다. 억압 받는 민족, 십자가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그래서 독립협회운동(1896~1903) 초창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초창기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상심이 항상 드러난다. 바로 한복 두루마기, 태극기, 십자가이다. 강화 합일학교의 조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 책보에 십자가를 다 새겼고, 태극기가 걸려 있음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G.H.Jones 연회보고서(1902)에 따르면 인천, 강화지역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 교인들의 전도 열기가 대단했지만, 신축년(1901) 흉년과 기근으로 인천 지방 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며 살 길을 찾아 집을 떠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한 예로 강화 교동에서는 1,200가구 중에 600가구가 기근으로 집을 버리고 타지로 갔다고 한다”며 “이에 교회마다 구휼회를 조직해 가난하고 굶주리는 교인과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천에 있는 Deshler씨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구제금을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동 기자

“6.25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오늘의 자유 가져와”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가 주최한 6.25 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말씀새로움교회에서 6.25 남침 71주년을 기념해 6.25 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를 가졌다.

김희창 회장은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강력함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기쁨이 이들의 희생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

인회는 참전용사 전원에게 선물을 전달했고, 6.25 참전 유공자회 오태영 부회장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 설명하며, 전투 중 장렬하게 전사한 소대원들을 회고했다.

이날 예배는 최정학 부회장의 인도로 김영구 목사가 “아래를 통해 위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육군동지회 최만규 회장의 사회로 최훈일 목사의 축복기도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미국과 참전 유엔군, 한국 학도병 참전군에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213) 268-9367 김희창 목사

한인목회강화협의회(Korea Ministry Plan, KMP)가 7~21일, 매주 월요일에 ‘온라인 역사 기행: 한인이 민교회의 뿌리’라는 주제로 ‘2021 KMP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7월 첫 날에는 이덕주 교수(감신대 은퇴, 한국교회사)가 ‘In the Beginning: 조선선교와 이민교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주변국으로부터 골고루 침략을 당해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선교와 목회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한다. 농사에 비유하자면 씨앗과 땅 그리고 농부가 성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육도였기 때문’이라며 “성경에서도 나오듯 한국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육도의 환경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2021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온라인 수업 제공 유학생 1-20 발급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장학금

2021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6월 10일(목)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2년)	USD 50	USD 250
M.Div (3년)	USD 50	USD 250
D.Min (2년)	USD 100	USD 350

■ 여름학기 일정(5주)
7월 5일(월)~8월 6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kor@itsla.edu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
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GMU 2021년도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총 41명 졸업생 배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이하 GMU)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7일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거행됐다.

올해 학위수여식에서는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1명, 선교학 박사 4명, 목회학 석사 12명, 기독교교육 석사 4명, 선교학 석사 3명, 기독교상담학 석사 1명, 대학부(신학, 상담학) 16명 등 총 41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수학생으로는 박효경씨, 한경선씨, 백미영씨가 선정돼 각각 이사장상, 총회장상, 총장상을 수여했다.

김현안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백성렬 교수가 기도하고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선교생활이 나타나는 삶이 되자 (행 20:17-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욱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붙들려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따라 살라”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1년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

전했다. 졸업생들에게 권면한 최규남 총장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맡겨주신 양들을 목숨

을 다해 사랑하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되길 바란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주의 신학의 전달자들이 되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졸업식에서는 독일 김태원 선교사가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태원 선교사는 1986에 은혜한인교회 해외파송 제1호

선교사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파송 후 유럽 선교와 구소련 선교, 남미 선교에 헌신했다. 특히 구소련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육한 제자들중 12명을 구소련과 주변 공화국 선교사로 파송해 구소련 복음화에 기여했다. 또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쿠바 등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남미 선교와 복음주의 신앙 부흥에 헌신했다.

GMU는 복음주의 신학교로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다. 학사 학위 과정은 신학박사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이며, 석사학위 과정으로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다. 박사과정으로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 박사 과정이 있다. 또한 100% 통신교육이 제공되며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공부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교회모임 제한’ 캘리포니아 주 패소, 215만불 소송비 지불 합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 페이스북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역 교회와 가톨릭 신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15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시아 바산트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판사는 2020년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오순절교회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빈 뉴섬 주지사과 주 정부 관리들이 전염병 사태에 대응해 예배당에 대한 “규정을 발행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오순절 교회의 160만 달러의 소송 비용과 LA 외 3개 지역 가톨릭 선교감독인 트레버 버핏 신부의 변호사 비용 5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자유를 위한 비영리 법률사무소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맡아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찰스 리만드리 특별 고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우스베이 사건은 1년 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세 차례나 간 전례 없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4천만 명이 캘리포니아

에 교회를 여는 획기적인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우리 공화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 운동을 지지하고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폴 조안나(Paul Jonna) 특별 변호인도 “교회에 대한 규제가 소매업에 대한 제한보다 더 심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최종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버핏 신부의 법률 대리인 크리스토퍼 페라리는 이번 금지 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추후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할 지 예상하면서 이 나라에 내려진 최초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녀는 “예배당은 가장 우대받는 세속적인 비교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대우행 기간 동안 우대받는 사업체가 (실내 수용 인원의)100%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교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버핏 신부는 소송문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제한 명령 조치가 예배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

장했다. 소송장에는 “누군가는 수 천 명의 정치 시위자들과 함께,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야개를 나란히 하고 행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예배 동안 동료 예배자와 6피트 이상 가까이

에 있거나, 종교 찬송이나 성가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적혀 있다. 지난 4월,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종교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 규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예배 규제 명령을 금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우스베이 오순절교회가 신청한 예배금지 명령 구제를 거부한 미국 제9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예배당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제한한 다른 여러 주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 법원의 결정도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헤세드 망고’ 로 캄보디아에 꿈을 전해요”



헤세드 망고를 소개하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

캄보디아 최석주 선교사가 ‘헤세드 망고’로 캄보디아에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헤세드 망고는 최석주 선교사가 지역 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가난을 보면서 캄보디아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설립한 ‘헤세드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100% 유기농 제품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구 제조업체 중 하나인 모나미의 전 임원이었던 최석주 선교사는 2016년 2월 캄보디아의 농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농산품 회사를 설립하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헤세드 망고를 판매하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현지 유통망이 열악한 캄보디아의 특성상 양질의 제품을 유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헤세드 망고 구입을 통해 가장 최고의 망고를 맛보시고, 캄보디아 농촌 발전과 복음화에도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세드 망고는 남가주 성도들의 개별 구매, 혹은 교회에서 단체 구매가 가능하며 한 팩에 7달러, 10팩에는 65달러며 코리아타운 크랜셔와 윌셔에 위치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문의: 213)864-5990 김동욱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의인하게 하였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영희교수(에스대), 송영명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은목사(주필리우대), 신정민목사(동원대), 유관지목사(종교문화연구원), 김민석목사(KCC공동대표)

* 영화 책은 아예 번역권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행/영)과 속편 ‘빛은 그를 의인하게 하였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정신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북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좀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역 다들 믿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W Valencia Dr

S Brookhurst Rd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 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 (Offline) 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 어) 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 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714-525-0088(Ext 101)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0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2)”

우리 선교사 일행은 멕시코 치아파스를 방문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신학교에서 출발하여 바하 캘리포니아 주의 최남단 도시인 로스 가보스 까지 밴차량으로 이틀에 걸쳐 왔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학교 출신 목회자가 5가정이 각기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준 생명의 근원 교회의 오토니엘 목사의 가정에서 모두 반갑게 만났다.

방학을 이용해 자신들을 방문한 우리 선교사 가족에게 감사하면서 모두 즐거운 사역 보고를 나누며 밤늦도록 교제하였다.

그곳 방문을 마치고 라파스까지 2시간을 다시 올라와서 멕시코 본토 서부 최대의 항구인 마사트란까지 가는 페리호를 탔다.

소요 시간 13시간. 자동차는 배 밑으로 정차시키고 우리는 침실로 이동 편안하게 휴식했다. 오후 7시 출발 다음 날 오전 8시에 도착하여 곧바로 남부 치아파스를 가기 위해 출발했다. 종일 달려 멕시코 시티 인근 모랄리아에서 1박을 했다. 그곳에도 우리 학교 출신 목회자 다비드 목사가 사역하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우리 숙소로 방문했다. 치아파스 출신 목회자가 수도 도시의 교회에서 청빙 받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멕시코 교단 교회는 특히 지역별 출신 목회자들의 텃세가 심한 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사역하여 교회도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목사로 입지를 세웠다. 참 자랑스럽고 믿음직했다.

우리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은 한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유일한 교단 신학교이다. 초기부터 멕시코 현지인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에게 우리 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배척과 냉대를 당했었다. 그런 중에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과 실력으로 곳곳에서 모범적인 목회자들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노회에서는 신입생들을 멀리 국경 도시인 우리 학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교로만 보내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렇게 반가운 만남을 갖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면서 Puebla를 거쳐 Veracruz 주를 도착하였다. 그곳에도 우리 동문 목회자들이 있다. 그곳 목회자들은 지난 4월 23회 졸업식 때 학교를 방문하여 보았기 때문에 일정상 다시 만날 수 없어 전화 통화만 하고 지나갔다.

아래쪽 Oaxaca 주에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쉽게도 우리는 이번 일정의 중요한 행사인 Chiapas주의 Ocosingo에 있는 엘로힘 교회의 예배당 헌당예배의 시간을 맞춰야 해서 그곳도 들르지 못하고 치아파스로 향했다. 우리 선교사들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제 우리 학교 동문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사역하는 열매를 얻게 되어 특히 28년 전 미주 해외 한인장로회 1호 파송 선교사로 멕시코칼리에 신학교를 세우고 개척했던 필자의 선임인 임원석 권영욱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과 노고에 고개가 숙여졌다.

이제 그 사역을 계승하여 제 2세대 사역을 이어받은 필자가 이분들의 선교 업적을 잘 계승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부담이 순간 몰아쳤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뿐.

드디어 길고 멋진 다리를 지나 치아파스에 입성했다. 그간 316명 졸업생 대부분이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 출신들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에 우리 선교사들은 더욱 감사하면서 들 어갔다. 이미 배라쿠르스주부터 점점산중 운동 수풀투성이인 정글 지대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치아파스의 산악과 정글은 더욱 깊은 모습이다. (계속)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바울의 아테네설교 정리”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복음증거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철학, 문학, 그리고 역사적 자료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심장 ‘아테네’에서 헤브라이즘의 진수인 “복음”을 전했던 이 설교는 탁월한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페쉬는 아테네의 바울 설교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F.F. 브루스는 신약에서 주석이 가장 풍성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마틴 다벨리우스 교수는 사도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탁월한 헬라적인 설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정점 (Climax)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 설교를 극찬하면서도 바울의 아테네의 사역은 결신자도 적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아서 실패로 규정합니다. 이런 다벨리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테네 지도급 인사인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니시우스가 회심합니다. 유세바우스는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고 디오니시우스가 아테네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시우스는 고린도 교회 감독을 거쳐 당시 대표적인 교회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 됩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유력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 설교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테네의 경험이 다른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닮은 도시 고린도 선교에 큰 결실을 얻습니다.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행18:5).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를 이끌었던 도시였고 무역을 선도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아시아의 아테네’였던 에베소 사역도 크게 성공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로 가려했지만 바로 가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역 후에 최종적으로 아시아의 심장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선교를 묘사하는 행19:26을 주목합니다. “(전략)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후략)”라는 구절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사용했던 말씀(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오 행17:24b)과 흡사합니다. 이는 당대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빌려왔거나 그의 말을 활용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 세네카의 말이 다섯 번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투스 와 더불어 스토아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여러 이유로 세네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세네카의 명문장을 인용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득합니다. 문화적 자부심에 충실했던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들보다 세네카를 더 잘 아는 바울의 논리에 감복하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철학을 만날 때 취할 태도의 모범이 됩니다. 행 17장 25 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며 하나님을 논증합니다. 이 말은 세네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26절도 세네카의 말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던 스토아학파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당시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했던 세네카의 신문(神論)을 인용하며 참신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순식간에 바울은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들의 신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학과 사람들은 세네카의 말로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철학적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몇 신약신학자들은 헬라철학을 사용한 바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헬라철학자들을 인용합니다.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한 학자는 바울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세네카, 에피메니데스 그리고 아라투스 등의 헬라 시인 철학자들의 시구와 문장을 24회 정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고향 다소에서 수준 높은 헬라 교육을 받은 바울은 철학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한천실 박사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냉철하고 논리적 설교다. 둘째,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과 상황에 맞추지만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않았다. 셋째, 구속사역에 대한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복음증거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청중을 분석하고 청중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다종교(多宗教)적인 사회입니다. 지나치게 상황에 타협한 설교나 지나치게 청중을 무시하는 설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황을 고려한 상황화된(Contextualized) 설교는 힘이 있고 청중에 대한 배려는 감동을 얻게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미주 한인교회 리오픈1-세리토스선교교회

담임 방상용 목사 “하나님 약속 굳게 믿으며 전면 재개방 준비”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이 6월 15일부터 완전히 정상화 됨에 따라 현지 한인교회들도 예배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면적인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미주 한인교회가 가장 집중돼 있는 LA지역 한인교회들은 이미 6월15일 전부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정상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

LA 세리토스 지역에 위치한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도 곧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것을 기다리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다. 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월부터 성도들에게 매주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고 백신 접종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현장예배에 복귀한 인원들도 늘어 아직 전면 재개방 전이지만 성인 성도의 약 60% 정도가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리토스선교교회는 그 동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예배 또한 최대한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도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대면예배를 계속 유지했고, 성도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을 때 한 달, 그리고 지난 1월 LA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 한 달만 현장예배를 중단했고 그 외 기간은 어려운 여건 중에도 최대한 모이기를 힘썼다.

방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순결하게 되고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또한 교회가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경고했다. 방 목사는 “성도들의 교제가 시작되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다”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원망하고 공격하게 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목회자들과 중직들이 특히 전면적인 재개방을 앞두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럴 때 일수록 복음으로 또 기도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방 목사는 팬데믹이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목사의 이 같은 소망은 지난 12일 새벽예배 설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방 목사는 이날 ‘심판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약속’(렘16:14-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저주와 심판의 환경을 팬데믹 가운데서 절망에 잠겨 있던 세상의 모습에 비유했다.

방 목사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저주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정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모든 곳에 다 초상이 나서 우는 마당에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가정조차도 갖지 말라고 하신다”면서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아야 할 시대였다. 무시무시한 시대이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세리토스선교교회 담임 방상용 목사 ©기독일보

않은 시대”라고 설명했다.

방 목사는 “본문 후반에 갑자기 광명의 빛이 나타난다.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빛이 아주 눈부시게 나오기 시작한다.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포로 잡힌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과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목사는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은 ‘그러나’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비록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구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리의 시작은 ‘그러나’였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은 신약에서만 시

작된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족속을 축복할 씨앗이 되라고 하신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이방나라 사이에서 중보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셨던 것”이라면서 “본문 말미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은 현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방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 분과 제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구원이 열방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진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목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예레미야에 내린 3가지 명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해당되지 않는다. 복음의 시대는 축제의 시대이고 위로의 시대이다. 결혼을 금하던 것이 이제 바뀌어졌다. 예수님의 첫 번째도 혼인잔치에서 이뤄졌다”면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소망을 가진 신부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 목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도 소망이 없이 슬퍼

하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곧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잔치집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애잔과 성찬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방 목사는 코로나 이후 시대와 관련, “이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축제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서 “늘 함께 울고 웃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를 소망한다. 또 우리가 체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세리토스선교교회는 예배의 전면적인 개방을 앞두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마다 예배참석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고, 친교와 목장사역도 이미 시작된 가운데 마귀의 훼방으로부터 영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방 목사는 “리오픈에 대한 큰 소망과 기쁨이 있지만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세리토스선교교회가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거리유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기독일보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s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후임 청빙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후임 청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릭 워렌 목사는 6일 주일 설교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후임자 청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워렌 목사는 “아내 케이와 함께 1980년 교회 설립한 후부터 이 날이 결국 올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아내와 함께 40년 인생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했다.

워렌 목사는 “이는 큰 일이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심지어 끝의 시작도 아니다. 시작의 시작이지만, 날 대신해서 우리 가족을 미래로 이끌어 줄 차세대 목회자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청빙 과정을 시작해 다음 주 담임목사를 찾고, 교회 설립자로서 덜 가시적인 자리에서 원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유일한 담임목사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워렌 목사는 교회 설립 40주년을 눈앞에 둔 2020년 1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 기도했고, 둘 다 하나님께서 40년간 헌신한 리더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고 느꼈다”며 “우리 둘 다 떠나는 것에 대해 마음의 평안이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까지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당시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주 후 40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코로나19 전염병이 1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터널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소한의



릭 워렌 목사. ©유튜브 캡처

과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후임자를 찾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심을 느꼈다”고 했다.

새들백교회는 남침례회에 속해 있고, 교회 직원들은 후임자 물색의 세부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

한 최종적인 단계를 볼 필요가 없다.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다.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기도 한 워렌 목사는 “교회를 떠날 의사가 없으며, 교회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로 전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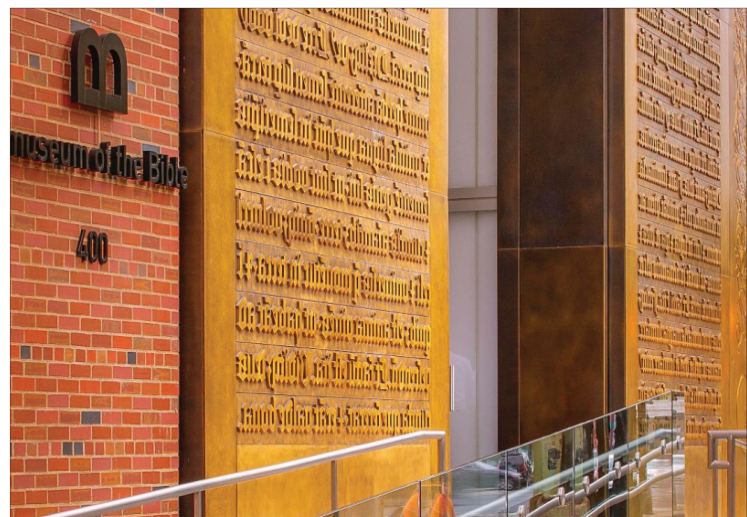
그는 “모든 활동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이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타이밍이 인생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한 후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과 이미 목적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목사로서의 성경적 자질’이 있는 사람을 교회 원로들과 함께 살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워렌 목사는 남침례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3명의 여성목사들을 안수해, 남침례신학교 알버트 몰러 총장, 남침례회 J.D. 그리어 총회장 등에게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미경 기자

미 성서박물관, 고대 성경 조각 훔친 전 옥스퍼드 교수에 700만불 소송



©성서박물관 트위터 캡처

지난해 4월, 고대 성서 조각을 훔쳐 판매한 영국 교수에 대해 미국 예술 및 공예품 판매업자가 700만 달러(한화 78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성서박물관 이사장인 스티브 그린리 회장으로 운영되는 ‘하비로비 스토어(Hobby Lobby)’는 전 옥스퍼드 대학 파피루스학 교수인 테크 오빈크(64)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10만 불 상당의 파피루스 조각과 고대 유물을 판매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미국 성서박물관은 2017년 새클러 도서관의 옥시링쿠스(Oxy-

rhynchus) 컬렉션에 전시되어 왔다. 이 고대 사본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이집트 옥시링쿠스시의 주민들에 의해 쓰레기 터미 속에서 발견됐다.

이 사본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리스어, 고대 이집트어, 콥트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50만 점 이상의 문자 및 기록 문서 조각이 포함되어 있다.

하비 로비는 소송문을 통해 “파편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파피루스 컬렉션의 관리인인 이집트탐험협회의 오빈크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탐험협회(Egypt Exploration Society)는 2019년 10월 오빈크가 파피루스 조각을 판매한 데 대해 그를 고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도 오빈크의 교수직을 박탈했다.

이 협회는 누락된 파편 13점 중 11점이 승인없이 하비로비 스토어에 판매되었고, 결국 성서박물관에 소장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성서박물관은 13개의 파피루스 조각들을 이집트탐험협회에 반환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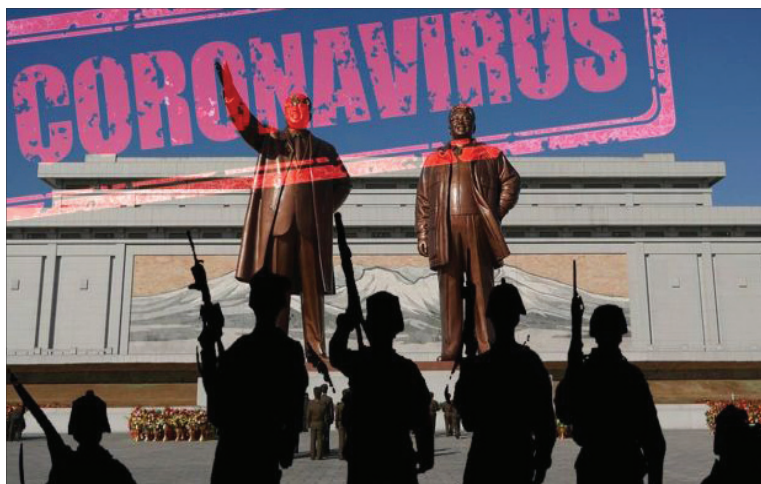
일간 ‘더 타임스’는 오빈크가 훔친 조각에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로마서 및 고린도전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오빈크는 지난해 3월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고 난 후 석방되었다. 당시 그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소장품을 훔치거나, 제자 또는 판매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더 타임스는 법원 서류 상에 오빈크가 옥스퍼드 대학 내 크라이스 처치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옥스퍼드 대학의 회계 장부에서 그가 공동 지분 소유권 계약에 따라 61만 4천불 상당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美 국무부 “北 여행 말라” 금지 조치 유지

‘4단계 여행 보건 알림’ 발표



©Unsplash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8일 코로나19와 미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추가 설명 등을 통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 대한 ‘4단계 여행 보건 알림’을 발표했다”며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코로나 상황과 관계 없이, 북한에 대

한 여행금지, 즉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여행경보 갱신을 통해 한국을 기존 ‘주의강화’ 즉 2단계에서 ‘일반적 주의’에 속하는 1단계로 조정했다.

미 국무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 방문에 관한 여행 보건지수 1단계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 재고(3단계), 여행 금지(4단계) 순이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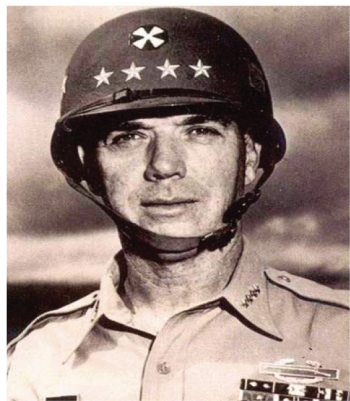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하루에 성경 120장씩 읽다 보니... 설교가 바뀌었어요”



성경을 매일 120여장 읽고 있는 김일수 목사. ©이대웅 기자

대폭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큐티와 제자훈련은 중단했습니다. 마지막 ‘다이어트’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만남만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젊은 장로님들이 성경통독 채팅방을 만들어 1년 3독·2독 그룹을 이끌고, 초신자는 1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제자훈련입니다. 구역장 훈련 등도 성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친구가 오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새신자 교육 정도만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성도들 간증이 그렇습니다.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성경을 2회 읽고 3번째 읽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정독하니 내가 바뀌는 걸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100독, 200독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저 자신이 바뀌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저 자신이 변해야 하는데 하는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자꾸 요구하고 지적하다,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니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편 23편 1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의 원래 깊은 뜻은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랄까, 요구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트집잡을 게 보이지 않으니, 잔소리도 없어집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에는 목사 관점에서 볼 때 못마땅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긍휼함이 느껴지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100독을 하고부터, 설교 원고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성경 120여장씩을 읽고 묵회와 설교가 달라진 목사가 있다. 성경 장수가 총 1,189장이니, 열흘이면 1독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올해까지, 성경을 240독 정도 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고사하다 은퇴를 앞두고 어렵게 자리한 서울 노량진동 헤브론교회 김일수 목사가 들려주는 성경 통독 이야기다.

-어떻게 성경 읽기 분량을 늘리게 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읽게 된 것은 7년 전부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잡혀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이거구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님께 잡힌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에는 하루 10장 정도 읽고 1년에 3~4회 통독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읽는 묵회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동과 도전을 주셔서 하루 20장 읽기로 늘렸다가, 두어 달쯤 지나 40장씩 읽었고, 1년 후 60장씩 읽게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자리가 잡혀서 하루 120장씩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요.

“하루 120장 정도 읽습니다. 한 달에 한 3번 정도 1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1,189장이니, 열흘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 1년에 36회 정도 통독하게 됩니다.

원래 새벽 4시 반쯤 일어났는데, 성경 읽을 시간 만들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한 시간 일찍 기상하고 있습니다. 3시 반부터 새벽과 아침 시간 50~60장을 읽고, 나머지 오전 오후 중에 30장 정도 읽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30장을 읽습니다. 관주나 해설 없이 말씀만 기록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묵회 일정이 바쁘실텐데,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시나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성경 읽기를 일종의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처럼 진행해서는 별 감동도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감동과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둘째로 시간에 대한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시간은 만들어야 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 읽는데, 시간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을 1시간 일찍 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난 만큼 일찍 잡니다. 오후 8시 30분이면 잡니다(웃음).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예배 전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1시간 정도 읽었는데, 끝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인터넷 헤드라인 뉴스만 대충 봐도, 사회 흐름을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서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은 약한 것입니다. 신앙서적과 간증서적 역시 성경에는 비할 수 없지요. 성경에 ‘울인’하기 위해, 주님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주석을 약간 보는 것 외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도 ‘다이어트’하게 됐습니다.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지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남가주 순복음교회
복음의 열매를 맺어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세계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 743-0141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남가주 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e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교우 5:30)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 749-7770 www.saeemool.church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움새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대웅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김나오미,백선경,로완리
신학사:임정열,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기부 문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팀 gratuity를 수입으로 생각하여 세금 보고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부의 분배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돌려받는 조건부가 아니라 기꺼이 흘려보내는 순수한 기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기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선용하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안겨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미덕인데, 우리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미덕인 것 같아요.”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라고 해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박스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1불이라도 기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박물관 공짜니까 돈 내지 말고 즐기라고 알리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광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 역시 뜨끔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 박물관 Museum of the Bible]이 있는데, DC에 가는 분이 있으면, 공짜니까 꼭 가보라고 제가 많이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입장료가 생겼고, 그것도 일 인당 20불이 되었네요. 제가 너무 광고를 많이 했나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작은 것이라도 기부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는, 미국에 사는 코리안-아메리칸으로 떳떳하게 이 땅을 축복하며 사는 성경적 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도내이션 박스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Giving USA에 의하면 2019년 미국인이 기부한 총금액은 4,496억 달러(\$449.64 billion, 한화로 약 5백조 원)로 이는 2018년 4,314억 달러에서 4.2%가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의 기부 금액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9위인 한국의 2019년 전체 예산이 47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부 문화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중 종교 관련 기부는 30%가 넘고, 교육 분야 기부가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미국에 기부 문화가 이렇게 정착한 이유는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세제 혜택을 꼽습니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어쩌면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시작된 나라, 미국은 이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헌법이 나눔과 복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가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마지막 잎새와 니글의 잎새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 소진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에 낙심이 되고 절망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가 정신적인 에너지와 창의력의 바다에서 몸부림칠 때, 어느 아침 작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니글의 잎새”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니글”(niggle)이란 ‘하찮은 일에 신경을 써 소진한다’는 의미인데, 자신에 모습을 한 화가에 빗대어 이야기를 적은 후 “더블린 리뷰”에 기고하였습니다.

니글에게는 대작을 그리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보다 잎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의 진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쉼 없이 자주 붓을 놓고 자질구레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독감 중에도 그 결작품을 향한 꿈을 잊을 수 없어 바둥거리다가 죽음의 사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의 미완의 작품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진 큰 캔버스 위에 찬란한 잎새 한 개만 아름답게 드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화가 니글이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려 마음 먹었던 바로 그 형상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수 많은 잎새들, 그리고 길게 자란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니글은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어 활짝 양손을 펼쳐 올렸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자신은 마음속의 결작을 다 그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완성된 실재를 준비하시고 니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위안을 얻은 톨킨은 글쓰기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소설, “반지의 제왕”을 완성합니다. 너무 크다 싶은 비전을 이루도록 돕고 미래의 승리와 완성을 선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도 이 시대의 니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일과 추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원로화가 결작을 그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쉽게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여류화가 존시는 폐렴으로 투병하며, 담장의 담쟁이 넝쿨의 잎새가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람이 무섭게 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 존시는 놀랍게도 담벼락에는 마지막 잎새 하나가 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존시는 마지막 잎새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동을 받아, 마침내 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에 살던 원로화가 배어머은 존시를 위하여 폭풍우가 부는 그 밤에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를 혼신을 다해 그렸습니다. 그는 그 작품을 그린 후 연은 폐렴으로 곧 죽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결작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작품이 되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톨킨이 그 작품을 쓸 때, 모든 가지가 잘린 것처럼 상상력이 고갈되고 창작을 위한 열정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시민이다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백성/시민/국민이다. 둘째는 하나님나라의 영토/국토이다. 셋째는 하나님나라의 통치원/주권/국권이다. 넷째는 하나님나라의 헌법이다. 그런데 이 네가지 중에서 앞의 세가지 요소 즉 국민, 국토, 국권은 하나님나라를 구성하는 외면적/구조적/형식적 (external/structural/formal) 요소 즉 하드웨어에 해당한다면, 네 번째 요소인 헌법은 하나님나라를 구성하는 내면적/내용적 (internal/substantial) 요소 즉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비유컨대 하나님나라의 외면적/구조적/형식적 요소는 그릇이라면, 하나님나라의 내면적/내용적 요소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인 것이다.

인류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타락된 에덴동산에 세워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외면적/구조적/형식적 요소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많은 자손 즉 백성과 국민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영토와 국토를 잘 유지, 관리하고, 확대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8절은 에덴동산에 세워질 하나님나라의 외면적/구조적/형식적 요소 (국민, 국토, 국권)를 복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 국토, 국권이 있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국토, 국권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여전히 외면적/구조적/형식적 요소일뿐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나라의 내면적/내용적 요소이다. 하나님나라의 내면적/내용적 요소는 하나님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이상, 풍토, 문화, 질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의 가치, 이상, 풍토, 문화, 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나라의 헌법이다. 하나님나라의 헌법은 창세기 2장 16-17에서 주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17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언약, 또는 선악과금명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 본문을 에덴동산에 세워진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나라의 가치, 이상, 풍토, 문화,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나라의 외면적/구조적/형식적 요소를 복으로 주신 하나님은 2장에서 그 나라의 내면적/내용적 요소인 헌법을 주시고 있다. 그렇다면 창 2:16-17이 규정하는 하나님나라의 가치와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임의로 먹되”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유의 원리이다. 둘째, “먹지 말라”는 말로 표현되는 순종의 원리이다. 셋째,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법치의 원리이다. 요컨대 하나님나라의 내면적 가치와 이상과 질서는 하나님나라 백성들의 자유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다. 여기에 에덴동산의 전체적 풍토로서의 평강/살림과 에덴

이라는 말 자체로 표현되는 기쁨의 원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난. 하나님나라의 내면적 가치와 이상과 풍토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이상, 풍토, 문화, 질서는 하나님과 피조인간 사이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그 인격적 관계는 자유롭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여 가르치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최초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막 1:15), 비유를 통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행 1:3).

이렇게 하나님나라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나라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국민/시민임을 알게 된다.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실현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하나님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요, 땅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외면적 요소 중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시민/국민의 측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

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9)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나라를 구성하는외면적 요소로서의 시민, 백성, 국민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시민/국민으로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누린다. 교회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나라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고,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결된 몸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님이며, 신랑이시며,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요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한편 하나님나라의 백성/시민/국민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나라를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국방의 의무,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근로/섬김의 의무, 하나님나라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헌금/나눔의 의무, 하나님나라의 탁월한 시민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연마하는 거룩한 교육/훈련의 의무 등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시민/국민인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뤄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유튜브 예능 <머니게임> (上)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 유튜브 웹예능 <머니게임>

인간, 환경 악화되면 악의에 가득 찬 존재자 돌변
젊은 세대 '올바르게 사는 법' 거의 훈련받지 못해
연장자들도 비슷했을 듯... 시청자마저 없었다면?
신앙양심과 헌신적 모범과 순종의 지도자들 필요

◆리얼리티 예능의 현실성: <머니게임> 설정의 높은 현실성과 젊은 세대의 호응

유튜브의 영향력이 공중파 및 케이블TV의 영향력을 점차 능가하는 가운데,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튜버들이 기존 방송업계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개중에는 대중문화계 전반의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

<머니게임>은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유튜브 웹예능 프로그램으로, 오픈된 지 약 한 달 만에 회당 평균조회수 500만을 기록했다. 주로 20, 30대 젊은 연령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연출상 약점과 특정 출연자를 둘러싼 인성 논란으로 초반부 인기를 크게 잡지 못했지만, 최근 방송계에서 발표된 예능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머니게임>의 규칙은 단순한 편이다. 8명의 참가자가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 모여 생활하면서 한정된 생활비를 나눠서 사용하고, 최후까지 퇴소하지 않고 버티는 참가자들이 남은 금액을 상금으로 나눠 갖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이 젊은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요소는 첫째, 참가자들 사이의 치열한 머리싸움과 감정대립이 주는 박진감과 즐거움이고, 둘째로는 프로그램 자체의 설정에 대한 감정이입일 것이다.

워낙 참가자들 사이의 대립 장면이 자극적이었던데다,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방송 이면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상금분배 담합과 갑질, 인간질이 문제시되면서 묻혀진 감이 있지만, <머니게임>의 프로그램 설정 자체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

을 만 했다. <머니게임>의 설정은 현실 반영에 충실해야 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핵심 덕목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머니게임>의 설정은 최근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삶을 제대로 압축해 보여준다. 갈수록 심화되는 실업 문제,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삶의 안전망 상실, 주거공간 확보가 힘들어 좁은 공간에 고립되다시피 살아가는 모습, 한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의 현실 등은 <머니게임>의 삭막한 배경 설정과 닮아있다.

이렇듯 '리얼'한 설정 덕에 <머니게임>은 적나라한 사회적 실험의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의 현장에서 일부 출연자들은 비교적 절제된 생활태도를 보여준 반면, 일부 출연자들은 각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저열한 모습들을 골고루 보여줬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은 이기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사는 이들이 오늘날 각박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적 결속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고립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리얼리티 예능과 현실: 올바른 삶을 훈련받지 못한 비극

<머니게임>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올바른 방향'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의 올바름, 즉 근면, 성실, 절제, 양심, 배려, 공존 등의 덕목을 지키는 삶을 말한다.

다행히 삶의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열악해진 상황에서까지 인내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머니게임> 참가자 대부분은 각



최근 방송계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유튜브 웹예능 <머니게임>. ©유튜브

박한 통제와 빈곤, 그리고 치열한 견제와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지극히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음주와 흡연에 써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승 상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을 일찍 탈락시키려 신경전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최소한으로라도 '올바르게 사는 법'을 거의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회적 실험이 되어버렸다.

참가자 전원이 악의적 행동을 일삼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중에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출연자들마저, 서로 간 갈등과 심적 부담이 커져가면서 점차 절제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한다.

젊은 세대뿐일까? 연장자들을 출연시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듯하다. 만일 저 상황에서 저들을 지켜보는 눈, 즉 일반 시청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은 더욱 더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다.

대중의 지탄을 받을 위험이 없었다면, <머니게임> 원작 웹툰에서와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원작 웹툰에서는 주인공 8호 참가자를 제외한 전원이 음주, 질병, 갈등으로 인한 싸움과 살해 시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

이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얻는 교

훈은 하나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 상황에서, 삶의 환경이 악화되면 악의에 가득 찬 존재자로 돌변한다.

<머니게임> 참가자들 가운데 영리한 이들이 나름 양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노력한 이면에는, 프로그램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각박하고 삭막한 경쟁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부에서의 평판과 인간관계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상황이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를 의식하기 어려울만큼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마저 쉽게 저버리기 일쑤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 삶의 현실은 이렇듯 인간이 최소한의 삶의 원칙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갖는 인간 퇴락의 역치력은 인간관계 축소와 고립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고, 심화되는 실업과 경제적 빈곤은 양심과 윤리, 배려의 삶에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삶의 어려움과 각박함으로 인한 인간 본성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추락하기 쉬운 본성과 사회적, 공동체적 통제의 힘을 아득히 초월하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것도 자기 삶의 현실과 별 상관없이 느껴지는 교리에 대한 이론적 믿음이나, 삶의 순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렬하고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세계 교회사 전체를 살펴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져갈 시점에서 신앙의 양심과 헌신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인 지도자들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획기적이라 할만한 전도의 결실이 맺어졌다.

사회가, 타인들의 시선이 지켜주

지 못하는 양심과 윤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준 것이다.

산업혁명의 물결로 전통적 사회, 경제질서가 무너져가던 18세기 중 후반에는 영국의 존 웨슬리가 농민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물결을 일으켰고, 비슷한 시기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개척지에서 겪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 아메리카 이주 초반의 청교도 신앙 정신을 상실해 가던 이주민들 사이에서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처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신앙의 양심 측면에서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그런 지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다수가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목회윤리 측면에서 자주 약점을 드러냈고,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교회가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줄만한 역할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 전체가 현실판 <머니게임>에 몰입해 있는 상황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 등을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웹예능 <머니게임>의 원작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머니게임>의 한 장면, 참가자가 생활비를 음주에 낭비하고 있다. ©유튜브



<머니게임>의 한 장면, 참가자 간 갈등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튜브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감정 표출은 연습할 수 있다

기분 따라 행동하다 늘 마음과 달리 손해 보는 당신에게

코로나 '집콕' 시대, 출산을 대신 가정폭력 늘어 가족들 함께 있는 시간 늘어날수록 마찰도 늘어난 사람의 진짜 모습, 기분 안 좋을 때 드러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심리 | 박영란 캘리온 | 196쪽

집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기분 사용법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그 중 하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부부가 집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 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늘어나는 건 이혼율일까, 출산율일까?' 과연 무엇이 늘어날까? 출산율이 늘었다면 좋겠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911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지만,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오히려 17% 늘었다고 한다. 중국은 3월 중순 이후 이혼 소송 건수가 25% 늘어났다. 미국과 중국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잦은 마찰이 일어난다. 가족이라도 오랜 시간 같이 있으려면 함께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짜증이 더 쉽게 나온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어갈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진다. 나의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안 좋은 기분을 드러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쉽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 통해 나타나는 태도는 기분, 체력과 연결돼... 질문하라

자신의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태도는 훈련을 통해 만들 수 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책은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맹자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기분과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기분은 체력과 연결되어 있다. 몸 컨디션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남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 마디는 튼튼한 체력에서 시작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1.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 2.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 3. 운동은 좀 하고 있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장에서는 내 기분을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감정 표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특히 우울한 감정은 더욱 그렇다.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3장은 기분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

힘든 사람을 위로해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로하는 일에는 서투르다. 힘이 들 때는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어야 한다. 마음이 힘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자신을 위로해 보자.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

신을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장은 오해하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말한다.

우울증에는 성급한 조언이 통하지 않는다. 경증의 우울감과 우울증 증상은 완전히 다르다.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피해야 한다.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 사람은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연봉이 올라 신이 나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물질적 보상을 과대 평가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큰 행운도 큰 불운도 우리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이다.

5장은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이다.

불안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이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행해 보자.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질투하는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질투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자신으로 옮겨 오면, 불필요한 질투에 에너지를 덜 쓰게 될 것이다. 질투에 쓰는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써 보자.

감정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 아니라 외부로 표출하는 데는 좋고 나쁨 존재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훈련 필요해

감정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다.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에는 좋고 나쁨이 존재한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감정은 자신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 표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게 한다.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훈련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40년은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시간이었다. 그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변화되었다.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성장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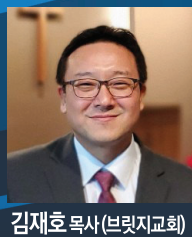
- '나 건드리지 마...' 경고를 온 몸으로 뿜어낸다
- 회사에서 뺨 맞고 집에서 눈 흘긴다
- 키보드를 부실 듯이 두드린다
- 애먼 후배에게 뺨! 신경질을 낸다
- 친한 친구를 감정쓰레기통으로 삼는다
- 입을 달아버리고 인사를 안 받는다
- 화물이 대상은 만만한 사람으로 골라서!
- 남의 사소한 실수를 쥐 잡듯이 몰고 늘어진다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브릿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이웃사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 7월 4일** 찬양 간증집회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7월 11일** 찬양 간증집회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7월 23-24일**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 7월 25일** 비전(Vision) 집회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 7월 25일**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2부) 오후 4:00



김재호 목사(브릿지교회)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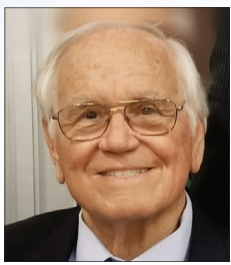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 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 대면 또는 ZOOM 비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연합)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연합)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경제) 신창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통일부교육위원



(구출구제)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정치)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홍보팀장



(지하교회)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영상문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영어2세)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총괄) 박상원 목사 GBMW



주관: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협력: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